

24. 3. 6.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모 두 발 언

2024. 3. 6. (수) 10:00
D-Camp 프론트원 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석해주신 각 부처 실·국장님들과

정책금융기관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자금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이를 정책자금 공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도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 '22.12월 1차회의 개최 후 분기별로 개최 중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산업전략에 맞춘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에서 중점분야의 자금수요를 제출하여 주신 결과

102조원+@의 자금을 5대 중점분야*에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장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①글로벌 초격차육성 17.6조원, ②미래 유망신산업 지원: 22.1조원, ③사업재편 및 산업고도화: 21.4조원, ④유니콘기업 육성: 12.6조원, ⑤기업 경영애로 해소: 28.7조원

또한 지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처의견에 따라,

지난 2월에는 여기 계신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그리고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을 통해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산업현장의 기대도 큰만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조기집행에 발맞추어
1분기 및 상반기 중 자금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최대한 증액하여 대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해 금번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5대 은행에서도 투자·대출 프로그램 등을
조기출시하여 지원효과가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금일 논의 안건

오늘 논의 안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방안]

오늘 논의를 통해 구체적 운영방안이 발표되는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최초로 은행권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중견기업특화펀드로
5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사업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직접적인 정책자금 투입 없이
순수하게 5대 은행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의미있는 펀드인만큼
시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금조성 등에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토록 하고
1호 투자사례를 빠르게 발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혁신산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참여하신 정책금융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드립니다.

[2. 혁신성장펀드 2차년도 운영방안]

올해는 혁신성장펀드가 2년차에 접어드는 해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고금리로 어려운 자금여건에도 불구하고
3.15조원이 조성되어 목표금액인 3조원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이들 조성액은 이미 미래성장동력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 '23년말까지 3.15조원이 조성되었으며, 총 12개의 기업에 투자 시행(706억원)

올해에도 혁신성장펀드를 3조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특히 최근 필요성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후 및 AI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3. 정책금융의 효과성 평가 계획]

지난 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23.9월)에서는
정책금융 투입 대비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금융연구원 및 신용정보원 등이 모여
평가방식을 연구 및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는 대출·보증·투자지원 등의 정책금융(Input)이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재무와 고용(Output)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집중 지원분야와 방식, 그 규모를 보다 효율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투자기업수가 적고 어느정도 사업 후 기간이 경과한
성장지원펀드('18~'20)로 시범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방법론을 고도화하여
결성 이후 3년이 지난 펀드 및 정책금융 전반의 자금지원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4. 기후금융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으로 기후금융 지원방안입니다.

지난 5차 협의회에서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기후금융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과 협의하여
기후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발족될 '미래대응금융 TF' 등을 통해
각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방안도 계속하여 논의해나갈 것입니다.

Ⅲ. 맺음말

올해에도 각 부처에서 공유와 협조가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말씀해주시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논의의 폭과 활용도가
더욱 커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희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